

중기부, 4조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디지털 전환 · 경영위기 극복 · 혁신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업자가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라 올해 총 4조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 2조5017억원 대비 1조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공방 보급예산 확대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백년가게 본격 육성
사업장 시설 개선 신규 지원

전북중기청 “도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계기 노력할 것”

작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전북대 대학로상점가에 구축된 바 있는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보급예산은 56억 원에서 5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이 보급·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슈퍼의 경우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에는 전국 800곳으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 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13억원 보다 대폭 확대된 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0억원을 신설하고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1조1000억원)해 민간금융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용자를 확대하고 대출시스템을 현장 전 과정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체계를 마련한다.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691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업종전

환·재창업 소상공인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를 신규 지원(120억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지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으로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장 시설 개선과 판로제공 등을 신규로 지원(58.5억 원)한다.

친환경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67.2억 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계를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189.5억 원)한다.

또한 약 2만1,000명의 소상공인·예

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교육을 지원(108.6억원)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국을 맞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가장 많이 준비된 시기에 맞춰, 보다 많은 전북지역 소상공인이 선정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부터 발표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s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금융지원 공로 '도지사 표창'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9월 전라북도와 '전북형 재해추진책'을 체결한 후 금지원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으며, 피해 지역 영업점에 '집중호우피해 전담창구'를 설치해 신속한 상담 및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8469개 업체에 2037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침체된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NH농협은행의 지역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자연재해 및 코로나 19로 도내 농업인 및 주민, 소상공인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피해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창농협, 시 피해 조합원

긴급 생활자금 1100만원 지원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사진)은 지난 5일 AI 예방적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11농가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 1100만 원을 자체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천만 원)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살처분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고수면 소재 육용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3km 이내 농장에서 실시됐다.

유덕근 조합장은 “최근 AI의 전국적인 확산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농업인 조합원의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과 방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유덕근 조합장은 “최근 AI의 전국적인 확산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농업인 조합원의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과 방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경진 신임 고창

농어촌공 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에 김경진 지사장(56)이 취임했다. 김 지사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집합제한 상황을 고려,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간단한 신년인사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읍 출신인 그는 충남대혁원 농업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1991년 공사에 입사해 분사 농지은행사업처와 해외기술처 근무를 거쳐, 토지개발사업단 토지관리부장, 정읍지사장을 역임하였다.

신임 김경진 지사장은 소통과 포용력이 좋아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행정분야 다방면에서 실무경험이 뛰어나 관리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식품부, 정부양곡 18만톤 수준 시장에 공급

1-2월 중... 2020년산 쌀 생산량 감소 등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0년산 쌀 생산량 감소 등을 감안해 1~2월 중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공매를 통해 18만 톤 수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매벼 8만 톤(벼 기준 11만 톤)은 산지유통업체 인수 의향 조사(6~8일)를 거쳐 11일부터 인도한다. 전복은 쌀 기준 9000톤이다.

다만, 쌀 명절을 앞두고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해 1월 중 2018년산 4만 톤, 쌀 이후 2019년산 6만 톤을 차례로 공급한다.

특히 2018년산 4만 톤은 떡집 등 영

세자영업자의 쌀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오는 14일 입찰해 쌀 전인 19일부터 인도하고, 2019년산 6만 톤은 쌀 이후인 18일 입찰해 24일부터 인도할 계획이다.

산물벼 인수도 및 공매는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벼 상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 11월 25일 2020년산 쌀 공급 부족을 감안해 수확기 이후 정부양곡 37만 톤 내외를 시장에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들의 안정

적·계획적인 원료곡 확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1년 정부양곡 공급예정 물량(37만 톤 내외) 중 18만 톤은 이번엔 공급하고, 잔여물량(19만 톤 내외)은 3~6월 중 공매(매월)를 통해 시장에 나누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연산혼입,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부족한 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정부양곡 공급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유통업체 등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직포를 덮은 배추포장.

이번주부터 강추위

“한파 피해 관리 예방 철저히”

농진청, “겨울 배추 등 언 피해 우려... 축사 보온 등 주의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지속되고, 특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 등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6일 당부했다.

이처럼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비닐, 볏짚, 부직포 등을 미리 준비해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면 작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

무는 0도 내외일 때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 주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가축의 경우, 추운날씨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축사 보온과 가축의 영양 공급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축사 틈새를 막아 가축이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축사 안쪽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겨울철에는 온열기구 등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지속되고, 특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 등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6일 당부했다. 이처럼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비닐, 볏짚, 부직포 등을 미리 준비해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면 작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 무는 0도 내외일 때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 주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수확해 임시 저장한다. 가축의 경우, 추운날씨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축사 보온과 가축의 영양 공급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축사 틈새를 막아 가축이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축사 안쪽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겨울철에는 온열기구 등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쉬워진다

**조달청, 올해 변경되는 제도 일정 등 누리집에 게재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 대상 신인도 가점 확대**

조달청(청장 김경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 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등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등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실시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반면 산 업재해 은폐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올 상반기까지 검진 가능

건협 전북지부, 일반검진·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포함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6월까지 검

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해당 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검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 건강검진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전북지부 이정재 진료과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며 “검진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경진 신임 고창 농어촌공 지사장 취임